

 보건복지부		<h1>보 도 참 고 자 료</h1>		
배 포 일		2020. 3. 20. / (총 12매)		
중앙사고수습본부 정책지원팀	팀 장 담 당 자	이 스 란 윤 민 수	전 화	044-202-3803 044-202-3898
중대본 총리실 상황실 기획총괄팀	과 장 담 당 자	노 혜 원 이 승 훈	전 화	044-200-2679 044-200-2295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팀	팀 장 담 당 자	김 기 남 박 나 연	전 화	044-202-3810 044-202-3811
국세청 징세과	과 장 담 당 자	유 병 철 정 상 수	전 화	044-204-3001 044-204-3002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팀 장 담 당 자	신 현 두 윤 동 빈	전 화	044-202-2473 044-202-2474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과	과 장 담 당 자	박 민 정 최 문 선	전 화	044-202-3510 044-202-35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 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 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국세청의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민생지원은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도 총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시행할 것을 당부하였다.

1 유럽발(發)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 19.~)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 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 음성이면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 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 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2 코로나19 관련 세정 지원 현황 및 향후 계획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 유예하는 세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

-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

-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단축 3. 20. (개별환급) 당초 4. 10. → 단축 3. 31.

※ 현재까지 세정지원 실적 : 신고·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유예, 환급금 조기 지급 등 총 14만3298건, 1조6061억 원 규모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대구·경북 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 앞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 27.)을 1개월 직권 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
 -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3 요양병원·요양시설 방역 관리 강화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에 취약한 노인 등이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요양병원에는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요양시설에는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 요양병원·요양시설은 중증환자, 사망자 발생 우려가 큰 곳으로서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종사자 및 간병인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①방역관리자 지정, ②외부인 출입제한, ③종사자(간병인)에 대하여 매일 발열 등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④유증상자는 즉각 업무 배제, ⑤종사자 마스크 착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명령 및 행정지도 조치를 통해 능동적인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 아울러 요양병원에 대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 명령을 위반하여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및 재정적 지원을 제한하고, 추가방역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까지 검토할 예정이다.

※ 요양시설의 경우에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감염병 예방법」 제70조에 근거하여 손실보상이나 재정적 지원이 제한될 수 있음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위와 같은 관리·감독 강화와 동시에 요양병원·요양시설의 감염관리상의 어려움*도 검토해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 간병인 마스크 공급 부족, 의료법상 인력 기준 적용 유예 등

4 | 코로나19 영문·중문 마이크로페이지 개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외국인 사용자를 위한 대한민국 코로나19 영문 누리집(<http://ncov.mohw.go.kr/en/>)을 개설(3. 19.)하였으며, 오늘부터는 중문 누리집(<http://ncov.mohw.go.kr/cn/>)도 개설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해당 외국어 누리집(홈페이지)은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현황**, 방역 체계 및 **환자 치료와 관리** 등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 나아가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행동수칙**, **국민안심병원 이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도 제공한다.

- 아울러 해당 누리집에서 **매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영어 동시 통역**으로 진행되는 **정부 브리핑**을 생방송으로 시청할 수 있다.

※ 정부 브리핑 생방송 시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마스크 수급 동향 및 이행계획

※ 해당 내용은 별도 브리핑 예정,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바랍니다.

소속	부서	연락처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	044-215-2710, 2712
	물가정책과	044-215-2770, 2771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융합산업과	044-203-4390, 4391
조달청	구매총괄과	042-724-7210, 7265
식품의약품안전처	소비자위해예방정책과	043-719-1711, 1722

※ 국민 여러분께서는 보건용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등 **피해사례**가 있는 경우 **신고센터(02-2640-5057/5080/5087)** 및 **소비자상담센터(1372)**, 그리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www.mfds.go.kr)**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 < 별첨 >
1. 코로나19 예방수칙 홍보자료
 2. 코로나19 의료기관 수칙 홍보자료
 3. 자가격리 대상자 및 가족·동거인 생활수칙 홍보자료
 4. 자가격리 환자 생활수칙 홍보자료
 5. 감염병 스트레스 정신건강 대처법
 6. <일반 국민>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7. <확진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8. <격리자> 코로나19 스트레스 대처방법 홍보자료
 9. 마스크 착용법 홍보자료
 10.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안내 홍보자료
 11.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홍보자료

붙임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관련하여 허위·왜곡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방역체계에 혼선을 가져와 코로나19의 효과적인 전파 차단을 어렵게 합니다.

지금은 모두가 힘을 모아 감염병 확산 차단에 집중해야 할 시기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주요 사례 >

< 기획재정부 주관 제약회사와 회의 결과라는 내용 관련 >

오늘 기재부주관 제약회사 사장들과의 회의 참석후 씬머리.

1. 현재 치료약 없음. 환자는 산소를 불어넣는 치료를 하는데 폐기능이 약한사람은 방법이 없이 방치.
2. 치료가 되어도 일반 폐렴보다 폐손상이 많아서 폐활량 손실이 엄청크다.
3. 백신은 4월경이 되어야 나올것임.
4. 이 바이러스는 직바로 폐를 손상시킴.
5. 금년 4월까지 하나투어.모두 투어를 제외한 나머지 여행사는 모두 부도. 해서 정부에 인건비 50% 보조 요청.
6. 이번달 제주 여행취소 98%.
7. 메르스는 일정지역 여행만 자체가 되어 전세계 관광에 부분적 영향. 이번것은 전세계 대상.
8. 우리나라는 4월이 peak 가 될것임.

요점은 절대 걸리지 말것. 치료되어도 완치가 아니고 폐손상이 너무 심각.

오후 1:39

▲ 기획재정부와 제약회사가 참여한 코로나19 관련 회의 결과를 정리하였다는 내용의 이미지가 모바일 메신저 및 누리소통망(SNS)에서 확산

☞ 기획재정부는 제약회사 사장단과 회의를 한 사실 자체가 없음

※ 참고로 치료가 되어도 폐 손상이 심각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 미국 하원의원의 한국 코로나19 진단도구(진단키트) 발언 관련 >



▲ 美 하원의원 '한국은 단일 면역글로블린항체만 검사, 미국은 복수 항체를 검사' 발언 관련

- 해당 발언을 인용, 한국 진단도구의 신뢰성 훼손 기사 발생 및 온라인 확산

☞ 美 하원의원이 언급한 것은 항체검사법으로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실시간 유전자증폭검사법(RT-PCR)과 무관

☞ 방역체계 기본인 진단검사의 신뢰성을 훼손하는 내용으로 충분한 사실확인 필요

< 부정확한 정보에 기반한 잘못된 방역 행동 >



▲ 코로나19 바이러스 소독을 위해 소금물을 분무기로 뿌리는 행위

☞ 인터넷이나 누리소통망(SNS) 등을 통해 전파되는 잘못된 정보를 믿지 마시고, 방역당국의 행동수칙을 믿고 지켜주시길 당부드림 (3.17, 중대본 브리핑 중)

※ 2번째 사진 출처 : 유튜브(사용자 : 나는 **), 3번째 사진 출처 : 경기도

붙임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

□ **한국기자협회 「코로나19 보도 준칙」 (2020.2.21.)**

- 다음은 2020년 2월 21일, 한국기자협회에서 제정한 「코로나19 보도 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이번 코로나19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1. 코로나19를 취재 및 보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자 스스로의 안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회사 측과 상의해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충분히 지급 받아야 합니다.

2. 세계보건기구(WHO)의 공식 병명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입니다. 보도 및 방송에서는 공식 병명을 사용해 주십시오. 세계보건기구는 2015년 표준 지침을 통해 지리적 위치, 사람 이름, 동물·식품 종류, 문화, 주민·국민, 산업, 직업군 등이 포함된 병명을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지역명을 넣은 '○○폐렴' 등의 사용은 국가·종교·민족 등 특정 집단을 향한 오해나 역측을 낳고, 혐오 및 인종 차별적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과도한 공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3. 유튜브 등을 통해 급속히 퍼지고 있는 코로나19와 관련한 허위 조작 정보의 재인용 보도 및 방송 또는 인권 침해 및 사회적 혐오·불안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자극적 보도 및 방송을 자제하고, 이를 요구하는 지시가 이뤄지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 참조 :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신문윤리실천요강 관련 조항

2020년 2월 21일

한 국 기 자 협 회

붙임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

[일반국민]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기침이나 재채기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세요.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을 만지지 마십시오.
4.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5. 사람 많은 곳에 방문을 자제하여 주세요.
6. 발열,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있는 사람과 접촉을 피하세요.

[고위험군] : 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

* 당뇨병, 심부전, 만성호흡기 질환(천식, 만성폐쇄성질환), 신부전, 암환자 등

1. 많은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마십시오.
2. 불가피하게 의료기관 방문이나 외출시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유증상자] : 발열이나 호흡기증상(기침이나 목아픔 등)이 나타난 사람

1. 등교나 출근을 하지 마시고 외출을 자제해 주십시오.
2.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시고 3-4일 경과를 관찰하여 주십시오.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①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②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4. 의료기관 방문시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5. 진료 의료진에게 해외 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를 알려주세요.

[국내 코로나19 유행지역]

1. 외출 및 타지역 방문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2. 격리자는 의료인,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붙임4

<입국자> 코로나19 예방·주의 안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주의 안내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 대유행(pandemic)에 따라 입국자의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립니다.

< 입국 후 주의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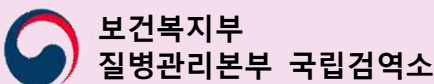
- 귀가시 마스크 착용, 주변인과의 접촉 피하기
 - 입국 후 14일간 다음사항 권고
 - 외출 자제, 특히 다중 이용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
 -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
 - *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여행력 알리기
 - 손 씻기,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지키기
-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 못하는 경우에도 권고 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

< 입국 후 14일 이내 증상 발생 시 >

- 발열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이 있을 경우 등교나 출근 등 외출 금지
- 관할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지역 120콜센터와 상담 및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 받기
- 의료기관 방문 시 해외여행력 및 호흡기 증상자와의 접촉 여부 알리기
 - * 거주지 보건소에 관리 대상으로 통보되며, 의약품 안전사용 서비스(DUR)·해외여행력 정보제공 프로그램(ITS)을 통해 의료기관에 해외여행력이 제공됨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주의 안내

< 주요 증상 >

- 발열(37.5°C 이상),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호흡곤란 등)

< 개인 위생수칙 >

-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손바닥, 손톱 밑 꼼꼼하게 씻기)
-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지 않기
- 기침 시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 발열, 호흡기 등 유증상시 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마스크 착용
- 실내 환기 주기적으로 하기

< 모바일 자가진단 앱 활용 안내 >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바일 자가진단 앱' 을 설치하기
- 입국 후 14일 동안 매일 1회 본인의 건강상태를 앱에 등록하기
- * 연속 2일 이상 증상을 호소한 경우 보건소에서 우선으로 확인

※ 의료인 및 방역당국의 지시를 철저히 따라 주십시오.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6조의2제5항에 의거 귀하의 해외여행 이력은 의료기관에 전달되어 진료 시 참고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는 감염병 예방의 목적으로만 활용되면 잠복기(14일) 경과 후 즉시 파기됩니다.